

13 | 가슴이 뜨거워지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 : 32).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기뻐 찬송하세”(새 159장, 통 149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 : 30~35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구원에 관한 기대를 걸었기에 그분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낙심하여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에서 한 낯선 사람을 만나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날이 저물어 함께 유하며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30-31절).

2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32-35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쉘러 리스트”는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유대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나치에 잡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오스가 쉘러의 도움을 받아 히틀러의 광기로부터 아내와 함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 준 오스카 쉘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 번화가 비버리힐즈에서 가족상점을 운영하면서 선이 닿는 대로 작가들에게 쉘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1980년 서류가방을 사러 그의 가게를 찾은 호주 작가 토마스 케넬리를 통해 1982년 소설 「쉘러의 방주」가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쉘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라며 매주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었고, 영화 “쉘러 리스트”를 만들어 1994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쉘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고, 그 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실재가 되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 부족한 자를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령의 열정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봉헌찬송 “내 주님은 살아 계셔”(새 170장, 통 16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